

■ 박근종 칼럼

무너진 계층 사다리 복원...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완화해야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계층 사다리를 오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점점 좁아지고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소득분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비율인 소득 이동성은 34.1%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17년 이후 최저치다. 2020년 35.8%를 기록한 이후엔 3년 연속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도 15세 이상 소득 있는 인구를 1~5분위로 나눴을 때 전년 대비 한 계단 이상 오른 사람은 전체의 17.3%에 불과했다. 2020년 18.2%를 찍은 후 계속 하락 추세다. 특히,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에서 벗어난 사람은 29.9%뿐이었다. 전년보다 소득이 늘어 계층 이동에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이 해마다 줄면서 '부(富)의 사다리'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부(富)의 양극화' 현상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 1분위(하위 20%) 중 27.8%가 2017년 이후 7년째 해당 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소득 5분위(상위 20%)는 59.3%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극명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소득이동 통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따질 뿐 임대, 주식배당 소득 등 재산 소득과 상속·증여 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면 실제 계층이동 사다리는 훨씬 더 열악(劣惡)할 수밖에 없다. 누구든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옛말인 "개전에서 용 나는" 사회가 아니라 개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전에서 용만 쓰는 사회"가 됐다"라는

표현으로 전락한 현실이다. 비교 시점에 가구소득이나 재산·이전소득은 제외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이들만 따진 통계인 만큼 비교 시점 모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없었던 이들의 삶은 더욱 팍팍했을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계층 이동성이 낮은 사회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고착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최근 12년 새 더욱 심해졌다는 국회입법조사처(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의 지난 10월 26일 발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12년간(2011~2023년)의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를 보면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0.011 포인트나 상승했다.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란 불평등을 한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다차원적 영역을 부분별로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결과인데, 양극화 골이 깊어진 정황이 수치로 확인됐다. 2011~2023년 12년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로 본 소득 불평등은 개선됐지만 자산·교육·건강은 더 불평등해졌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양극화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빴다.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부동산·세제 등 정부 정책의 전 분야에서 불평등 완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은 '시의성(時宜性)'이 적절하다. 집값 급등이 불러온 자산 양극화 탓에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에도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

소득 이동성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감소 추세로 계층이 더 견고해지고 있었다. 2018년 소득 이동성은 35.8%였지만, 2019년 35.5%로 떨어진 뒤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20년 35.8%로 올랐다가

2021년 35.0%, 2022년 34.9%로 하락했다. 2023년(34.1%) 역시 전년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35.2%, 남성이 33.3%로 집계됐다. 이중 여성의 상향 비율은 18.1%, 남성의 상향 비율은 16.6%로 여성이 더 높았다. 남성은 5분위(27.9%), 4분위(23.3%)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1분위(26.2%), 2분위(23.8%), 3분위(23.3%)에서 많아 남녀 간 소득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15~39세)의 소득 이동성이 4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장년층 31.5%, 노년층 25.0%였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오히려 하향 이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추락해 계층이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젊은 청년층은 상향 이동(23.0%)이 하향 이동(17.4%)보다 많았지만, 저소득의 '땃은' 여전했다. 청년층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소득 이동성을 높이려면 구직 기간을 단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 이동성이 너무 낮으면 계급 고착(固化)의 우려가 크고, 너무 높으면 사회 불안정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기업은 나름대로 실효성 높고 지속 가능한 대책과 수단을 발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무엇보다 젊은 청년들이 자산 형성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교육, 주거 대책에 국가 역량을 집중(集注)해야만 한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청년 고용률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고임금 상위 20%의 일자리가 2023년 27.1%나 수도권에 몰리는 것처럼 일자리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 타개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젊은 청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의하면 청년들의 1분위 탈출률이 떨어지고 있다. '소득분

위'의 위아래가 고착(固着)하며 '소득 양극화'도 악화(惡化)했다. 이런 판국에 저급의 노동정책은 이미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층의 '노동'만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은 후(後) 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연장은 젊은 청년 취업난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년제 사업장은 전체의 21.8%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만 혜택을 보고,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자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은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에서부터 출발하고 고질화(痼疾化)하는 '일자리 mismatch(Mismatch | 엇박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사회에 첫 진출을 하는 젊은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고용 정책부터 부동산 정책까지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세제의 합리화, 지속 가능한 재정, 고용 우선의 노동시장 정책 등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한 이슈에 대해서는 세대 간 균형과 조화의 형평을 견지(堅持)하되 의당(宜當) 청년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은 우리 사회 기성세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자 의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과거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가 한국의 하위 중산층에도 계층 상향의 길을 제공했다'라는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의 대물림을 좌우하는 오늘날 이런 평가도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회 통합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부(富)의 사다리' 붕괴를 더 이상 방치(放置)하고 방기(放棄)해서는 곤란하다. 무너진 계층 사다리 복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완화하고 '일자리 mismatch(Mismatch)' 해소에 있음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사라진 이웃 간의 情 회복
자원봉사센터와 (사)한국영화배우협회

센터-한국영화배우협회, 7일(금) 이웃화합 프로젝트의 시민참여

독려를 위한 MOU 체결 이웃간 갈등 예방 활동 진행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이웃화합 프로젝트의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사)한국영화배우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이웃 간 갈등 예방과 관계 회복을 위한 이웃화합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하였으며, 협약식에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송창훈 센터장과 (사)한국영화배우협회 이갑성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사)한국영화배우협회는 이웃화합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과 캠페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함께 하게 되며, 자원봉사의 확산과 함께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력도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앞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사)한국영화배우협회는 양천구 장독대 봉사단과 함께 '이웃을 위한 장나눔 활동'과 '이웃 갈등 예방 꾸러미 나눔' 등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원들은 양천구 장독대 봉사단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정성껏 담긴 된장과 간장을 장독에서 꺼내는 장뜨기 활동에 이어

소득된 용기에 장을 옮겨 담아 건강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포장 작업을 했다.

이렇게 봉사단의 정성이 담긴 먹거리는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도록 돕는 이웃 갈등 예방 꾸러미와 함께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되었다.

꾸러미 안에는 생활 속 불편함을 줄이고 이웃 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증간소음 예방 슬리퍼 등 물품을 담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사)한국영화배우협회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웃문화를 복원하고 서울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한국영화배우의 선한 영향력이 자원봉사를 통해 서울 곳곳에 퍼져나가길 바라며, 그 일에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누리집(https://volunteer.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전략사업팀(☎ 02-2136-8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빈집이 '마을 등대' 도서관으로 변신...서울시, 빈집활용 디자인 공모 5개 선정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 건축관련 대학생, 신진건축가 참여 44개 작품 공모

대상 '비콘 라이브러리' 등 도서관·예술인 레지던시·담양안뜰 지역특성 살린 5개작 당선

수상작은 빈집 정비사업에 실질적 활용, 시·자치구·SH 협력으로 생활환경 개선

신진건축가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방치됐던 빈집이 마을 도서관, 예술인 레지던시, 마을 카페 같은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지난 10월 20일~22일 진행된 '빈집 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신진건축가 17개팀, 대학생 27개팀이 참여해 44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서울시는 1·2차 심사를 거쳐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

시는 SH와 함께 정비사업으로 매입한 빈집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같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K-건축의 시작, 서울 빈집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신진건축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심사는 ▲활용성 ▲창의성 ▲정체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건축조경경관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대상 '비콘 라이브러리', 낯선 투명한 정원·밤엔 골목 비추는 등대〉

대상은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을 모으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공간으로 마을 도서관을 디자인한 미아동 'Beacon Library'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미아동 그루터기 도서관', 우수상은 3개 작품 ▲목산동 도시속 작은 지붕 ▲육인동 레지던시 ▲육인동 담장안뜰이 선정됐다.



대상 미아동 Beacon Library는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마을의 상징적 공간으로 낮에는 열린 정원과 투명한 공간으로 주민과 시각적으로 소통하고, 밤에는 사선 지붕 아래 퍼지는 따뜻한 빛으로 골목과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며 언제나 지역을 밝히는 등대처럼 작동하도록 디자인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미아동 그루터기 도서관은 그루터기에서 새로이 뻗어나가는 가지들을 직통계단 등으로 디자인해 각 층마다 내부 기능, 다양한 종류의 책벽들을 경험하는 사용자의 모습이 외부로 투과되어 도서관은 사람에게 책과 공간을, 사용자는 도서관에게 여러 표정을 주고 반도록 디자인했다.

우수상 육인동 레지던시는 서촌의 다양한 갤러리가 모여 있는 예술마을의

특성을 살려 카페의 기능을 포함한 주민 편의시설로 디자인해, 작가와 주민들의 예술교육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성과 주변 맥락을 잘 담았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4일 SH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대상 1팀에 500만 원을 비롯, 5개 수상팀에 총 1,100만 원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11월 17일~21일 5일간 시민들이 수상작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한 SH 지하1층 공간에서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결과는 SH 누리집(https://w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현 가능 디자인, 내년 빈집 정비사업 반영〉

서울시는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디자인을 2026년 서울시·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실효 빈집 정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한다.

공모전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진 건축가들의 디자인과 공공 지원을 통한 빈집 문제 해결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대학생과 건축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빈집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건축적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빈집이 새롭게 변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순창군이 소비자 신뢰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GAP) 확대에 나섰다.

GAP 인증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하게 관리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제도'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위해 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현재 순창군 내 GAP 인증을 받은 농가는 791농가, 인증 면적은 약 634ha에 달한다. 이 가운데 두릅은 전체 인증 면적의 52%를 차지하며, 군에서 가장 많이 인증받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참채소, 과수 등 다양한 품목이 GAP 인증을 받아 안전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다.

군은 신규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해 토양, 용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비와 함께, GAP 인증 심사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GAP 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GAP 인증 절차는 농업인이 위해요소 관리계획서와 기본교육 이수증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기관이 심사를 진행한 뒤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증을 받은 일반 농산물의 유효기간은 2년, 인삼류 및 약용작물과 같이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 이상 재배 후 수확하는 품목은 3년이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컨셉스

전 세계 도심항공교통(UAM) 최신 기술과 정책의 향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제5회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컨셉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전기 동력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를 활용해 도심 상공을 이동하는 차세대 교통체계로, 2040년경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1,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인천시는 UAM을 기반으로 도서 지역 1일 생활권과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라뱃길 상공 도심 실증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콘퍼런스(Conference, 강연)'와 '엑스비전(Exhibition, 전시)'의 합성어인 '콘펙스(CONFEX)'로, 국내외 도시와 기관, 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강연은 2일간 8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국제기구·도시·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산업화 모델·인프라 구축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심층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는 로비 및 프리미어볼룸에서 열리며, 글로벌 UAM 기업과 산학융합지구 기업(10개사 내외) 등이 참여해 첨단 기술과 산업 트랜드를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꾸며진다.

우선, 유시장은 인천시가 의장도시로 참여 중인 국제 협업체인 GURS(Global UAM Regional Summit) 총회가 11월 20일 개최돼 도심항공교통 정책 협력과 국제 연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내·외 UAM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초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세게타임즈	www.thesegeye.com 기사제보: news@thesege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귀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상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 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 A 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